

워크아웃 금호타이어 고강도 구조조정안 제시

1,377명 감축·임금 20% 삭감

노사 임단협 개시…협상 진통 예고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기업개선 작업) 자구안으로 기능직 1천377명에 대한 구조조정과 임금 20% 삭감을 제시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1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김종호 사장과 고광식 노조위원장 등 노사 고교위원회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견례를 갖고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을 개시했다. 노사는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제1차 본교섭에 들어가 자체 자구안에 대해 논의했다.

본교섭에서 회사 측은 경쟁사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 분야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적자 규격 생산 중단 등 생산구조 개선 ▲해고 371명과 도급화 1천6명(고용 보장) 등 인력구조 개선 ▲임금 20% 삭감과 3년간 임금 및 정기 승호 동결 등 임금구조 개선 ▲유급일·연월차 휴가 축소 ▲복리후

조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으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노조는 임단협을 조기 개시해 노조원들의 생존권과 고용 유지를 적극 동호하고, 합법적으로 파업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히 지난 2008년 임단협에서 노동강도가 높아짐에도 생산량 10% 증산에 합의해 희생을 감내했고, 지난해부터 신규채용 없이 정년

퇴직과 명예퇴직을 통한 인력 구조조정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그동안 '일방적인 구조조정에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해왔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집행부 회의와 대의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회사 측은 노조 측에 2일 2차 본교섭 재개를 제안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1일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시민들에게 '금호타이어 애용'을 당부하는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타이어 제품 사주세요”

노조원들 ‘금호 살리기’ 길거리 홍보 나서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1일 '금호 타이어 제품 사주기' 등 지역민들의 금호 살리기 동참을 호소했다.

금호타이어 노조 간부 5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광주시 동구 금남로와 충장로, 광주역 등 광주시내 곳곳에서 워크아웃 사태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근로자들의 노력 등이 담긴 호소문을 광주시민에게 나눠주며 금호타이어 애용을 호소했다.

노조는 “그동안 유동성 위기 극복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대우건설과 대한통운 인수로 인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됐다”면서 “하지만 금호타이어는 6천여명의 직원과 2만2천여명의 협력업체 직원들의 삶이 있고, 63년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업체이니만큼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시, 전남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금호 살리기 범시민 운동에 감사하다”며 “하루속히 워크아웃을 종료하기 위해 노사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을 위해 2008년 임단협에서 일부 노조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생산량 10% 증산에 합의해 연간 3천억원의 원가절감 효과를 거뒀고, 지난해에도 정년퇴직 등 인원 자연감소 등을 감내하는 등 자발적 회생 노력을 성실히 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어 “광주시, 전남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 등 금호 살리기 범시민 운동에 감사하다”며 “하루속히 워크아웃을 종료하기 위해 노사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분양 수완지구 롯데마트 앞 멀리스타워빌딩 대

※각층 약 230평(분할가능)※

○대지매매○

• 수완동 롯데마트 앞 10×10×6m코너 상업용지270㎡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평당 225만원

○점포임대○

• 수완동 주변대로변(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평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 합

• 수완동 삼성전자앞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평당 150만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완동 삼성전자앞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평당 120만원(외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 수완동 한국파트 24 17/7 8평 6천평 12평

• 수완동 금호파트 24 13/7 5평 3천평 3평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9평)	1,800만원	금융기관 의류 등
2층~4층	400~500만원	병원, 학원 사무실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학원, 특사실 사무실 등
10층 495㎡ (150평)	350만원	

상가 임대

(동립 2지구 정류장 앞)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5층 495㎡ (150평)	280만원	학원 노래방 등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 011-602-2532

(광주광역시 산본동, 대인동 소방서전면)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신가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면,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8 2010년 2월 2일 화요일

광주일보

보해, 목포에 금융센터 짓는다

하당지구 내년 완공

보해그룹 금융센터 신축공사 기공식이 1일 목포시 상동 하당지구에서 열렸다.

〈사진〉

보해 금융센터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8천55㎡ 규모로 내년 1월 완공 예정이며 보해상호저축은행 등이 입주하게 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오문철 보해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와 김상봉 보해양전 전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보해상호저축은행은 지난 1971년 목포에 설립된 한일상호신용금고가 모태로, 1988년 보해양조가 인수했다. 광주·전남지역 제2금융



권을 대표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 목포시 명륜동 본점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보해상호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축을 통해 지역경제, 금융에 관

한 조사연구 활동 및 지역 내 학제

수급 업무 등 지역 저축은행으로

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기아차 ‘신차효과’

1월 판매 16만대

전년比 120% ↑

기아자동차가 지난달 내수 3만4천 7대, 해외 12만9천231대 등 총 16만3천283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아자동차에 따르면 내수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4.2%, 해외 판매는 147.5% 늘면서 총 판매 실적도 119.8%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내수는 노후차 세제지원 종료로 26.9% 감소했으나 미국 조지아주 공장 출고 개시에 힘입어 해외판매는 12.1% 늘어 전체적으로 0.9% 신장했다.

국내에선 K7이 4천172대가 팔려 기아 차종 가운데 판매 2위에 올랐고, 쏘렌토R도 3천751대가 판매해 인기를 유지했다. 경차 모닝은 8천155대가 팔려 쏘나타에 이어 국내 판매 2위에 올랐다. 해외판매 중 국내 생산분은 6만2천550대로 작년 1월 대비 71.2% 증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종소세 신고자 17만명

10년 새 3배 가량 늘었다

광주·전남 지역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 지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8년

광주지역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3

만2천830명에서 2008년 9만9천551

명으로 3배 가량 늘었다. 전남지역도

같은 기간 2만8천489명에서 7만8천941명으로 2.8배 상승했다.

종합소득세는 주로 개인사업자로 신고

세목이다. 전국적으로는 1998년

122만5천614명에서 2008년 358만4

명으로 2.9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08년 10월 17일에

증가한 320만4천명에 그쳤다.

신고자들은 사업을 많이 하는 40대

가 119만7천554명으로 1위였고 30대

(88만1천619명), 50대 (76만9천169

명), 60대 (31만7천130명), 30세 미만

(29만8천172명) 순이었다.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1